

전대·조대병원 전공의 복귀 '미미'...의료공백 지속

전대 112명·조대 106명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 전공의 계약 종료·임용 포기에 전주보다 의료진 줄어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데드라인'이 지났어도 돌아올 경우 처벌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들 복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던 전임의들마저 계약 종료 또

는 임용 포기로 상당수 이탈함에 따라 의료공백 지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전남대·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남대병원 278명, 조선대병원 114명 등 총 400명 가량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거나 휴가를 떠나는 것으로 병원을 이탈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남대병원 119

명, 조선대병원 1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집단사직 초기부터 법적 대응 기조를 밝힌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이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으나, 복귀 시한까지 전남대·조선대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은 각각 7명에 그쳤다. 이날까지 추가 복귀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자는 전남대병원 112명, 조선대병원 106명으로 추산된다.

전임의(펠로우) 이탈도 현실로 다가왔다. 전남대·조선대병원 전임의 신규 채용 예정자 상당수가 임용을 포기하면서 현재 전남대병원엔 약 24명, 조선대병원엔 7명의 전임의들이 근무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올해 신규 채용 예정은 52명이었으나 21명이 임용을 포기했고 임용 예정자 중 일부는 병역 문제로 오는 5월부터 근무할 예정이다. 조선대병원 역시 신규 채용 예정자 14명 중 12명이 임용을 포기했으나 최근 1명이 임용 포기를 철회해 신규 전임의 3명과 기존

전임의 4명 등 7명이 일하고 있다. 전공의에 이은 전임의 공백 외에도 이달부터 근무 예정이었던 상당수의 인턴(전남대병원 86명, 조선대병원 36명)들도 임용을 포기해 병원 안팎에선 의료공백이 지속·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날 지역 한 대학병원에 치료를 보러 온 시민 박모(58)씨는 "평상시에 비해 대기 환자 수는 많은 것 같지 않는데, 기다리는 건 30분 이상 길어졌다"며 "언제쯤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 한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지 이주 동안 현장을 지킨 의료진들은 현재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며 "진료나 수술이 기약 없이 밀리면서 불안감과 불만을 호소하는 환자들과 의료계 모두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점에 이르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남대·조선대병원을 찾아 미복귀 전공의 현황을 최종 파악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영 기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헌혈자 감소로 혈액 수급의 차질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4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 마련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버스에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임 무효 최종 승소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임 무효 소송과 관련, 상고심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김옥수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김의원은 지난 2022년 서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구의회가 승소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

복대법원 상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1·2·3심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원고(김의원)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소송이 전반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이어지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되었으나 이제 마무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단합되고 일하는 의회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길거리서 신체부위 노출 현직 소방관 입건

광주 한 길거리에서 보행자에게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현직 소방관이 입건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연

음란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바지를

벗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 보행자들 앞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주성학 기자

'광주 초교 강당 작업자 추락사'...노동청, 중처법 적용 검토

혐의 인정엔 지역 첫 확대 시행 사례 개학을 앞둔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추락한 60대 작업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노동청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

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를 교체하던 A(64)씨가 28m 높이 사다리에 추락했다. 추락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달 28일 결국 사망했다. 사고 초기부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자와 시공업체 대표

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사망했고, 해당 업체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만큼 노동청은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난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광주·전남 첫 입건 사례다. /안재영 기자

'적재량 측정' 피해 운전 화물차주 벌금형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피하기 위해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도로를 통행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

살트럭 운전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해 관련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로 통행해야 하나 A씨는

지난해 8월 한국도로공사 동광주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 두 차에 걸쳐 통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도로법 제115조 제5호와 제78조 제3항 등을 고려, 형을 정했다. /안재영 기자

'손목치기'로 보험금 타낸 60대 항소심서 감형

일명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6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부 덕에 실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방별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6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인근 도로를 갈아타던 중 우회 전하던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 1천

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10월 광주 동구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화물차를 발견하고 뒤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2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고의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사실 모두 인정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토대로 감형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투약 후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마약 구매를 위해 광주를 방문,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했고 숙박업소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장은정 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Petal cave

DANIELE Skin & Body Aesthetic

THE 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HDK 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금호힐드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